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주님 공현 대축일

2021. 01. 03. (나해) 제2249호

대구주보



계산성당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2독서** 에페 3,2,3-4,5-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느님의 표징들

수성본당 주임 | 신현욱 루카 신부



오늘 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그 ‘별’은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당신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신기한 자연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 또한 오늘날 우리처럼 그저 먹고사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 놀라운 표징 앞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위대한 분의 탄생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하느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 표징의 의미를 잘 깨달았습니다. 그 ‘별’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고 그것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 그분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일들과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의 표징을 찾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일상의 일들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속에,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느님의 표징과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때로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그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갈망들, 인생의 허무함과 영혼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삶의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 인생에 깨달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모든 일이 우연이고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는 인생에는 감동도 변화도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많은 표징들을 통해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성탄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오 복음서(1,1-17)와 루카 복음서(3,23-38)에 실려 있습니다. 특히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일흔일곱 대(代)를 거쳐 성부 하느님께 이르는 족보를 수록함으로써, 예수님을 천지창조로부터 이어지는 전 인류의 구원 역사의 정점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을 히브리어로 ‘아담 אָדָם’이라 부릅니다. 천지창조와 원조의 범죄 이야기(창세 1-3장)에서 그들은 아담이란 단어 앞에 대부분 정관사 ‘하느님’을 붙이는데요, 이는 아담이란 단어를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일반명사(‘사람’)로 사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창조, 범죄와 징벌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은 과거 속 ‘아담’이란 한 개인의 전기(傳記)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사람’ 곧 우리 모두의 존재와 운명에 관한 기록인 것이지요.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 이 단 한 줄의 말씀에 우리들 사람의 존재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아담’)은 결국 한 줌의 흙(히브리어 ‘아다마’)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느님의 “생명의 숨”을 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귀함은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으로”(창세 1,27) 창조되었다는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마 5,14)는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함과 그분과의 친교를 훼손했고, 이후 사람들의 죄는 계속되는 하느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구원의 약속(‘원(元)복음’: 창세 3,15)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마침내 때가 왔을 때 독생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조의 범죄 이래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일, 원조로 대표되는 전 인류의 불순종을 성부께 대한 완전무결한 순종으로 갚으심으로써,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새 창조를 이루신 ‘새 아담’이 되셨습니다.(로마 5,12-21 참조) 루카 복음사가는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 이러한 보편적 구원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죄를 범한 아담을 “하느님의 아들”(루카 3,38)이라 부르는 족보의 마지막 구절에 시선이 머무릅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숨어버린 ‘옛 아담’ 같은 우리를 ‘얘야,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참조) 하시며 늘 먼저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파스함이 묻어납니다. 만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모두가 양심에 비춘 결단과 의지로 늘 하느님께 순명하고 그분의 섭리 속에 머무는 ‘새 아담’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길 기도합니다. **✠**

“똑!똑! 하느님 말씀입니다”

성서사도직 담당 | 여한준 롯젤로 신부

대구대교구 성서사도직담당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교구 내에 활동 중인 여러 성경학교와 성서모임의 상호 긴밀한 유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교구민들의 삶이 ‘복음화’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성서사도직 담당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다양한 ‘성경학교’와 ‘성서모임’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특수한 목적과 지침에 따라 성경 관련 모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하느님 말씀에 맞선 사람들의 만남과 어울림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구는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하나의 성경모임에 치중하기보다, 지역적, 방법적, 특성별로 다채로운 성경공부와 모임이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교구 신자들의 삶의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성경 관련 모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대리구별 성경학교** : 하느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말씀을 생활화하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웃의 성화를 이루어가며 신앙을 증거하는 봉사자를 양성하는 대리구 성경학교가 3,4,5 대리구청을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 **베네딕도 성경학교** :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위해 톡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는 경산과 대구 관문동(베네딕도 수녀원 영성관)에서 일반과정 4년, 심화과정 3년,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톨릭 성서모임** : 성경에 대한 갈증을 느낀 시대의 요청으로 생겨난 ‘성경 생활화 운동’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평신도 성서모임’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이사야, 마태오, 코린토, 로마서라는 9단계의 과정을 차례로 공부하고, 연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톨릭 성서모임에서 양성되고 파견된 봉사자들의 인도 아래 7~8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정해진 교재(각 과정마다 15과)를 활용하여 ‘읽기, 배움, 묵상과 생활’을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겨자씨 성서모임** : 예수성심시녀회 소속으로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며 신앙으로 심화시키고 사랑의 삶으로 다져나가는 성경공부 모임입니다. 본과과정(4년)과 심화과정(4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 청년들이 성경을 보다 능동적으로 접하고 자신의 삶을 복음화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의 봉사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모임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의 5과정의 공부와 연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인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의 사목교서에 따라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마련된 성경학교와 성서모임의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복혜 칸디다 (? ~ 1801년)



신자들 사이에서는 ‘정 과부’라고 알려진 정복혜(鄭福惠) 칸디다는 한양 근처에 살던 양인 집안에서 태어나 혼인한 뒤 한양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1790년 무렵 이 합규를 만나 교리를 배우면서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다.

이후 칸디다는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면서 친정 오빠와 아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또 과부가 된 후에는 한신애(아가타), 윤운혜(루치아) 등과 함께 신자들 사이의 연락을 도맡았으며, 교우들이 만든 교회 서적을 팔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우들과 함께 모여 교리를 강습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칸디다는 우선 성물과 서적들을 한신애의 집으로 가져다 숨겨두고, 교우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동안의 활동으로 인해 그녀의 이름이 박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해 2월 포졸들이 마침내 그녀를 찾아내 형조로 압송하였다.

이때 형조에서는 일단 정복혜 칸디다를 포도청으로 옮겨 문초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형조로 데려와 문초와 형벌을 가하면서 그동안의 행적을 추궁하고 배교를 강요하였다. 이때 그녀는 잠시 마음이 약해졌으나, 곧 이를 뉘우치고 자신이 한 일을 떳떳하게 고백하였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1년 5월 14일(음력 4월 2일)이었다.

당시 형조에서 칸디다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너는 남자 신자들과 어울려 부녀자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으며, 천주교 서적과 성물들을 모아 한신애의 집에 숨겨두고 훗날 천주교를 전파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평화의 길인 돌봄의 문화



제54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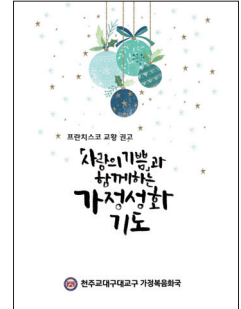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가정성화 기도 이벤트 안내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가정성화 기도서”를 12일 동안(12월 16일 ~ 27일) 함께하신 분들에게 알립니다.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가정성화 기도서”를 들고 구유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그 중 100명을 추첨하여 케이크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1가구당 1회 응모)

기간 : 1월 8일까지 ※ 당첨자 선정 발표 : 1월 12일(화)

방법 :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카카오톡 채널로 사진 전송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 3114



2021 대구주보 개편 안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라는 교구의 사목방향에 맞춰 2021년도 대구주보의 내용이 새롭게 바뀝니다.

1면 교구 내 본당 소개 - 그림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리구 별 가나다 순으로 연재됩니다.)

2면 주일의 말씀 - 신부님들의 강론

3면 강수원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 / 교구 사회복지회의 『더불어 사는 세상』
박병규 신부의 『성경 속의 여인들』 / 생태환경 이야기 『보시니 좋았다』

4면 『말씀의 터』 - 교구 내 성경 모임 소개 / 『바티칸 소식』 - 교황님 말씀
『문화와 영성』 - 신간, 전시 등 문화 소식 /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 수기

5면 『민음의 길』 124위 순교 복자 약전

새해 인사

박성규 엘리지오

대구주보 애독자님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미사 안내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월 4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월 9일(토) 10:00 월성성당

코로나 극복 예쁜엽서 · 성탄카드 전시회 성료

지난 12월 14일(월)부터 27일(일)까지 진행된 코로나 극복 예쁜엽서 & 성탄카드 전시회에 작품을 보내주신 분들과 코로나를 이겨내고 성탄과 새해를 맞는 희망의 마음을 함께 엮어 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전문인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진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 칼럼 연재중 | 리스토리TV 유튜브 진행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3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신다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공장직영도매(동고령C)

삼우쌍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불박이,신발장,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연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축 확장 이전 —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 ▶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

윤영희

성형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영희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장순도(바르나바) 신부
1971년 1월 5일
- 하야사까(이레네오) 주교
1946년 1월 6일
- 전석재(이나시오) 몬시뇰
1988년 1월 7일

성소 | 피정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매월 지역별 장소 지정
문의: (010)2140-7414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1.23~25 / 1.29~31
2.5~7 / 2.20~23 / 2.27~3.1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행사 | 모임

동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1.20(수)~22(금)
장소: 농은수련원

고3·대학·일반: 1.27(수)~29(금)
장소: 한티피정의집
(참가 학년은 2021학년도 기준)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9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 시행
문의: 320-2061

<http://www.tcmccch.co.kr>

목포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

접수: 1.7(목)~11(월)
모집: 간호학과 9명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문의: (061)280-5108, 5150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접수: 1.7(목) 9:00~11(월) 18:00
모집: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문의: 입학관리부, (051)510-0702
<http://ipsi.cup.ac.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모집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대구가톨릭요양원 시설명칭 변경

변경일자: 2020.11.1~
당초 시설명: 대구가톨릭치매센터
변경 시설명: 대구가톨릭요양원
문의: 616-2141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심리상담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채용 | 안내

동촌성모유치원 정교사 채용

대상: 경력 2년 이상, 몬테소리 자격
마감: 1.10(일)
문의: 981-5248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7~9

38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평화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백 합 식 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02-8392 대구 053)257-1771
www.spcfood.co.kr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20m)

잘보는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 구원모
이태윤(미카엘) · 김진선 · 구병영
효성병원 맞은편 1~4층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가톨릭피부과 의원
SINCE 1963 CATHOLIC SKIN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창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